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중국어 자막 번역 연구 — 사극 대사를 중심으로

변운수* · 이근석**

목 차

1. 서론
2. 호칭어·존칭어·겸칭어
3. 관직·관칭
4. 제도·문화·기타
5. 사극 관용표현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공식 중국어 자막을 대상으로, 한국 사극 특유의 언어 요소가 중국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의 셰프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하는 이 작품은 현대 한국어와 사극체 화법이 혼재되어 있으며, 궁중 음식과 조선시대의 제도·생활문화 요소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번역학적 논의 가치가 높은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칭어·존칭어·겸칭어, 관직·관칭명, 제도·문화 관련 어휘, 관용표현의 네 범주를 중심으로 간체자막(TT1)과 번체자막(TT2)을 비교·분석하고, 수정자막(TT3)을 제안하였다.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생(제1저자)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동일한 한자어라도 역사적·제도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시 대상과 위계 체계가 달라, 직역만으로는 원문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충분히 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번역전략으로 조선의 위계 체계를 중국 시청자에게 익숙한 황제관련 표현으로 재맥락화하는 자국화(domestication), 직능과 위상이 유사한 중국 관직으로 대응시키는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 원문의 함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명시화(explicitation), 그리고 중국 사극의 관용표현을 활용한 관용적 등가(idiomatic equivalence)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한국 사극의 중국어 번역전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사극 용어의 한·중 대조 어휘집과 중국어 번역 매뉴얼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 폭군의 셰프, 한중 번역, 사극 자막 번역, 문화소 번역, 자국화, 기능적 등가, 넷플릭스 자막

1. 서론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가능성을 입증한 첫 무대는 중화권이었다. 중화권은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이 해외로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수용 시장이자 전파 거점으로 기능했으며, 오늘날에도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주요 소비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화권에서 형성된 한류(韓流)는 이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한류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한국 콘텐츠의 공식 유통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해외 거주 중국인의 글로벌 OTT 이용과 VPN 등을 통한 해외 OTT 접속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Netflix)는 중국 본토에서 공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간접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콘텐츠를 중화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번역 매개로 기능하

고 있다.

2025년 8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공개 4주 차에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대만·홍콩을 비롯한 41개 국가·지역에서 일간 종합 1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누적 3,200만 회의 시청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비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작품은 중화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음식 소재와 배우 임윤아¹⁾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현대의 프렌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하여 궁중에서 활약한다는 설정으로 인해, 작품에는 현대 한국어와 사극체 화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궁중 음식과 조선시대 생활문화 요소, 서양 요리 관련 외래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번역의 난이도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폭군의 셰프》의 한중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성격을 지닌다.

사극은 시대적 배경과 신분 위계, 전통문화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장르로, 현대극보다 복잡한 번역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조선시대의 관직·관청·궁중 용어는 중국과 역사적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제도와 의미 체계에서 차이를 보이며, 사극체 화법 역시 현대 중국어와 일대일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 사극의 중국어 자막 번역은 언어적 등가성뿐 아니라 시대성과 위계성, 문화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국 사극 번역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어 번역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번역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과 역사·문화·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중화권에서는 서구권과는 다른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극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1) 임윤아는 케이팝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로, 중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에서도 높은 인지도와 팬층을 확보하였다.

다.

이에 본 연구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공식 중국어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사극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극체 화법이 중국어 자막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조선시대 관청·관직·궁중 관련 용어에 적용된 번역 전략을 살펴본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역과 어색한 번역을 수정하고, 새로운 번역 전략을 적용한 수정자막(TT3)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OTT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사극 자막 번역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화권 시청자를 위한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번역 용어와 사례 제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출발어(Source Text)와 도착어(Target Text)는 각각 ST와 TT로 표기한다. TT1은 간체자막, TT2는 번체자막, TT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정자막을 의미한다. 영상 자막에는 일반적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문장부호를 추가하였다.

<예시 00> 0화 00:00 홍길동의 대사
ST (Source Text): 한국어 자막
TT1 (Target Text 1): 간체(简体) 자막
TT2 (Target Text 2): 번체(繁體) 자막
TT3 (Target Text 3): 필자 수정 간체 자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자막은 보다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번역을 지향하기 위해 중국어 원어민 10명과 한국인 2명의 검수²⁾를 거쳐 보완하였다. 다만 번역은 언어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수정자막 역시 유일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절한 번역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인 참여자 : 왕○의(廣東, 27세), 류○(貴州, 31세), 로○요(河南, 27세), 강○(陝西, 31세), 왕○원(江蘇, 27세), 양○옥(遼寧, 26세), 주○미(黑龍江, 28세), 위○(河北, 26세), 장○(湖南, 28세), 진○(江蘇, 28세). 한국인 참여자: 이○정(27세), 김○민(26세)

2. 호칭어·존칭어·겸칭어

사극에서는 호칭어와 인칭대명사 자체가 화자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로 기능한다. 즉, 인칭대명사를 선택하는 방식만으로도 존경과 겸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는 주로 어미 변화를 통해 높임과 낮춤을 표현하는 현대 한국어의 경어 체계와 구별되는 사극체 화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시1> 2화 41:29 대사의 대사

ST: **주상 전하** 납시오!

TT1: **主上殿下**駕到!

TT2: **主上殿下**駕到!

TT3: **皇上**駕到!

‘전하’는 왕이 등장하는 한국 사극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호칭으로, 《폭군의 세프》에서도 총 783회나 등장한다. ‘전하(殿下)’는 ‘전각 아래에서 뵈는다’는 뜻으로, 군주를 직접 호명하지 않고 일정한 의례적 거리를 유지하여 높이는 극존칭이다. ‘폐하(陛下)’ 역시 ‘섬돌 아래에서 뵈는다’는 뜻의 존칭이지만, 일반적으로 ‘폐하’는 황제, ‘전하’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군주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계 체계가 한중 양국에서 동일하게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궁정 용어에서 ‘殿下’는 황태자나 친왕 등 황족을 가리키는 호칭이며, 최고 통치자인 황제에게는 ‘陛下’를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 사극의 ‘전하’를 ‘殿下’로 직역하면 중국 시청자는 이를 황족의 호칭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陛下’로 번역하면 조선 국왕을 황제와 같은 위계로 격상시키는 역사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한자어라도 문화권에 따라 지시 대상과 위계가 달라 사극 번역에서는 정확성과 가독성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보

면 ‘전하(주상)’와 ‘폐하(황상)’는 각각의 문화권에서 최고 통치자를 높여 부른다는 점에서 기능적 등가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국의 위계 체계를 문자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중국 시청자의 인식 체계에 맞게 황제 중심의 위계 구조로 재맥락화하는 자국화 전략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화권에서 성공적으로 방영된 한국 사극들도 이러한 번역전략을 활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중국 방영³⁾ 한국 사극의 중국어 자막 예시



이러한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시청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제후국 관련 용어를 중국 사극에서 통용되는 대응 어휘로 치환하는 자국화 번역이 원문의 기능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번역에서는 ‘전하’를 중국 사극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주 호칭인 ‘폐하’로 ‘주상’은 ‘황상’으로 각각 수정 번역하였다.

이 밖에도 《폭군의 셰프》에는 다양한 왕족 관련 어휘가 등장한다. 이들 표현은 한자어임에도 중국 시청자에게는 생소하거나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을 종합하여 자국

3) 《명성황후》는 2004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8)를 통해 방영되며 중국 시청자에게 한국 정통 사극을 소개한 초기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장금》은 2005년 9월 후난위성TV(湖南衛視)에서 중국 본토에 처음 방영되었으며, 높은 시청률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한류 확산의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다.

화 전략에 따른 수정번역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왕족 관련 호칭어의 자국화 번역 일람표

ST	횟수	TT1	TT3(자국화)
전하	783회	殿下	陛下
주상	171회	主上	皇上
주상 전하	20회	主上殿下	皇上
나라님	5회	主上殿下	皇上
중전	6회	中殿	皇后
세자	3회	世子	太子
대왕대비마마	67회	大王大妃娘娘	太皇太后
대비마마	32회	大妃娘娘	皇太后
할마마마	28회	祖母	皇祖母
옹주	2회	翁主	郡主
의빈	1회	仪宾	驸马
대군	177회	大君	王爷

〈예시2〉 4화 05:32 강숙원의 대사

ST: 전하, 오늘 **소첩**이 자르려는 것은 귀녀의 팔이 아닙니다.

전하의 마음이지요

TT1: 殿下, **哀家**今日想斬斷的并非那宫女的手臂,

而是您那被她吸引的心啊

TT2: 殿下, **哀家**今日想斬斷的並非那鬼女的手臂,

而是您那顆被她吸引的心啊

TT3: 陛下, **臣妾(妾身)**今日想斬斷的并非那宫女的手臂,

而是您那被她吸引的心啊

〈예시2〉에서 ‘소첩’을 ‘애가(哀家)⁴⁾’로 번역한 것은 오역에 해당한다. ‘소첩(小妾)’은 아내나 후궁이 남편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겸칭이다. 반면 ‘애가(哀家)’는 중국 전통 소설과 희곡에서 황제의 사후 황후나 황태후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따라서 군주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후궁이 자신을 ‘애가’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표

4) 漢典, “哀家”: “旧小說、戲曲中太后或皇后在丈夫死后的自称.”

현이다. ‘소첩’에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TT3에서 제시한 ‘신첩(臣妾)’ 또는 ‘첩신(妾身)’으로, 이는 중국 사극에서도 후궁이나 부인이 군주 또는 남편에게 자신을 낮추어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시3> 2화 47:17 도승지의 대사

ST: 소신의 하찮은 혀로는 먹어도 먹어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TT1: 那自然, 我这微不足道的舌头无法品鉴其味

TT2: 自然, 我这微不足道的舌头無法品鑑其味

TT3: 那自然, 微臣这微不足道的舌头无法品鉴其味

<예시3>의 ‘소신’은 신하가 왕이나 왕실 인물에게 자신을 낮추어 지칭하는 대표적인 겸칭 표현이다. 그러나 TT1과 TT2에서는 이를 모두 단순한 일인칭 대명사인 ‘我’로 번역하여, 궁중 예법과 신분적 위계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장면은 왕의 문책에 대해 도승지가 답변하는 상황으로, 화자의 겸양적 태도와 군주에 대한 복종 의식을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TT1과 TT2의 번역은 이러한 화용적 기능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소신’과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TT3의 ‘미신(微臣)’이다.

<예시4> 4화 05:19 왕의 대사

ST: 죽이려 했던 소자의 마음도 변화시킨 여인이니까요

TT1: 是她的手艺让寡人打消了取她性命的念头

TT2: 正是她的手藝讓寡人打消了取她性命的念頭

TT3: 正是她的手艺让孙儿打消了取她性命的念头

<예시4>는 왕이 대왕대비 앞에서 여주인공을 변호하는 장면이다. 대왕대비는 단순한 정치적 상위자가 아니라 왕의 할머니이므로, 이 장면에서는 군신 관계보다 가족 내부의 위계와 효의 질서가 우선한다. 중국어의 ‘寡人(과인)’은 군주가 신하를 상대로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겸칭이다. 그러나 ST의 ‘소자’는 윗어른 앞에서 자식이나 손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가족

적 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TT1과 TT2의 ‘寡人’은 원문의 관계와 화용적 맥락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반면 TT3의 ‘孫儿’는 손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왕과 대왕대비의 가족 관계와 원문의 화용적 기능을 보다 자연스럽게 재현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3. 관직·관청

왕이 등장하는 사극의 특성상 작품에는 다양한 관직과 관청명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는 한국 시청자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외국인 시청자에게는 이해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유사한 역사·제도를 공유하는 중화권 시청자는 영미권 시청자보다 이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의미와 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원문의 기능과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극 용어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중화권 시청자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예시5> 2화 33:23 여주인공의 대사

ST: **나리**, 음식은 먹어 봐야 그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TT1: **太人**, 食物总要亲口品尝才知道它们的味道

TT2: **太人**, 食物總要親口品嘗才知道它們的味道

<예시6> 2화 35:06 공조참관의 대사

ST: 홍경달 **영감**께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TT1: **太人**也該知道, 不該如此冲动行事

TT2: **太人**也該知道, 不該如此衝動行事

‘나리’, ‘영감(令監)’, ‘대감(大監)’ 등의 호칭은 본래 특정 관직이나 품계를 지칭하던 용어였으나, 극 중에서는 높은 벼슬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를 지녔던

성인 남성을 높여 부르는 일반적 존칭으로 사용된다. 중국어 자막에서는 이들을 모두 ‘大人’으로 옮겼는데, 이는 각 호칭이 지닌 역사적·제도적 차이를 일일이 구분하기보다, 높은 신분의 관료를 존대한다는 공통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의미를 전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개별 호칭의 세부적 위계는 축소되었으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위계와 존대라는 화용적 기능은 목표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된 합리적인 자국화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시7> 6화 12:04 우의정의 대사

ST: **대감들**, 걱정만 하고 있으실 게 아니라 방책을 세우셔야지요

TT1: **众卿**, 与其在此忧心忡忡, 虚耗光阴, 不如赶紧想个对策

TT2: **衆卿**, 與其在此憂心忡忡, 虛耗光陰, 不如趕快想個對策

TT3: **诸位大人**, 与其在此忧心忡忡, 虚耗光阴, 不如赶紧想个对策

반면 <예시7>은 앞선 두 사례와 달리 호칭의 화용적 기능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의 ‘대감들’을 ‘众卿’으로 옮긴 것이 문제인데, ‘卿’은 본래 군주가 신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므로, 우의정이 동료 대신들을 부르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위계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결과로, 동급 관료 사이의 대화를 군주가 신하에게 하대하는 듯한 관계로 왜곡한다. 반면 TT3에서 수정 번역으로 제시한 ‘诸位大人(여러 대인)’의 ‘大人’은 중국 사극에서 관료들 사이의 상호 존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며, 상하 관계뿐 아니라 동급 관료 사이의 예우 표현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능한다.

조선 시대 사극에서 국왕의 등장과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궁녀와 환관이다. 《폭군의 세프》에도 다양한 역할을 맡은 여관(女官)과 내관이 대거 등장한다. 다만 조선의 내명부(內命婦) 직제는 중국의 역사적 관직 체계와 완전히 대응되지 않아 번역상 난제가 따른다. 예외적으로 ‘상궁(尙宮)’은 중국 사극에서도 통용되는 직함이어서 원어 명칭 그대로 직역해도 중국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궁’ 앞뒤에 결합하는 구체적인 업무분과나 존칭어는 경우에 따라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춘 자국화 번역이 필요

하기도 하다.

<예시8> 3화 09:48 엄숙수의 대사

ST: 예, 말씀하십시오, 제조상궁마마님

TT1: 娘娘, 金提調尚宮, 请讲

TT2: 娘娘, 金提調尚宮, 請講

TT3: 掌事尚宮大人, 请讲

<예시8>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는 상궁의 존칭인 ‘마마님’을 ‘娘娘’으로 옮긴 것이다. 중국 황실에서 ‘娘娘’은 황후나 비빈 등 황실 가족에게만 쓰이는 극존칭이므로, 여관 신분인 상궁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상궁의 지위와 권위를 고려한다면 TT3에서 제시한 ‘大人’으로 옮기는 편이 궁중 법도에 맞고 자연스럽다.

두 번째 문제는 ‘제조상궁’의 ‘제조(提調)’를 직역한 점이다. 조선 시대의 ‘제조’는 본직 외에 특정 조직을 총괄·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직함으로, 중국 관직 체계에는 대응어가 없어 직역만으로는 그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 TT3의 수정번역에서 제시한 ‘掌事’는 중국 사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특정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掌事尚宮’은 내전의 모든 업무와 재산을 총괄하던 제조상궁의 역할을 중국 시청자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다.

<예시9> 4화 25:12 대왕대비의 대사

ST: 주상, 최고상궁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어찌 감히 주상을 능멸하겠습니까?

TT1: 尚宮她只是遵循法度而已, 绝不敢有冒犯之意

TT2: 尚宮她只是遵循法度而已, 絕不敢有冒犯之意

TT3: 皇上, 掌膳尚宮她只是遵循法度而已, 绝不敢有冒犯之意

‘최고상궁’은 수라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상궁으로, 정식 명칭은 수라간 차지상궁(水刺間次知尚宮)이며 품계는 정오품(正五品)에 해당한다. 그런데

TT1, TT2 모두 이를 ‘尚宮’으로만 옮겨 ‘최고’에 담긴 직위의 의미를 누락하였다. 한편 수라간은 임금의 식사를 담당하던 주방을 가리키므로, 최고상궁의 직능은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TT3에서는 중국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뜻하는 ‘膳⁵⁾’이란 용어를 활용하여 ‘掌膳尚宮’이라는 표현으로 ‘최고상궁’의 자국화 번역⁶⁾을 제시하였다.

<예시10> 3화 25:49 수라간 관리내관의 대사

ST: **상선** 영감께서 직접 오신 것을 보면

사안의 위중함을 모르시겠는가들?

TT1: **尚膳**大人都親自來了, 你還不明白事情的嚴重性嗎?

TT2: **尙膳**大人都親自來了, 你還不明白事情的嚴重性嗎?

TT3: **金公公**都親自來了, 你還不明白事情的嚴重性嗎?

<예시10>의 TT1과 TT2는 원어의 한자 표기를 되살려 ‘尚膳大人’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런 번역 전략은 도리어 도착어 시청자가 인물의 신분과 서사적 역할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상선’이 환관이라는 핵심 정보를 고려하면, 한자 직함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그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국화 표현이 더 효과적이다. 준칭어 ‘영감’의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사극에서 환관에 대한 존칭으로는 ‘大人’보다 ‘公公’이 훨씬 익숙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公公’은 범칭(泛稱)적 성격을 지녀 그 자체로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못하므로, 중국의 관습에 따라 ‘성씨+公公’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상선’이라는 관직과 ‘창선(昌宣)⁷⁾’이라는 이름

5) 漢典, “膳”: “飯食; 進食.”

6) 이와 달리 별도의 자국화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각 처소의 궁녀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은 ‘감찰상궁(監察尙宮)’이 대표적이다. ‘監察’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감찰상궁’은 10화 49:24, 11화 15:36, 11화 16:14에 각각 등장한다.

7) ‘창선’이라는 이름은 실제 역사 인물인 김처선을 연상시키기 위한 설정일 가능성이 있다. 연산군 관련 서사에서는 충신형 내시를 묘사할 때 김처선의 이미지가 자주 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 제시될 뿐 성씨에 관한 정보가 없다. 이에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김(金)을 첨가하여 ‘金公公’으로 옮겼는데, 이는 인물의 신분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중국 시청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번역전략이다.

《폭군의 셰프》는 요리를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극의 상당 부분이 궁중 주방과 그곳에서 일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작품 속에는 조선시대의 주방 관련 관직 및 관청 용어인 ‘숙수’, ‘대령숙수’, ‘사용원 제조’, ‘사용원’ 같은 사극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예시11> 2화 31:31 참봉의 대사

ST: 여봐라 어서 찬방에 있는 **숙수**들을 끌고 오라 일러라!

TT1: 把廚房的**熟手**全都帶來!

TT2: 把廚房的**熟手**全都帶來!

TT3: 來人吶! 把廚房的**廚子**全都押來!

<예시12> 1화 02:44 왕의 대사

ST: 지금 당장 이 여인을 수라간 **대령숙수**에 임명하라!

TT1: 因此, 寡人命她即刻...出任**待令熟手**!

TT2: 因此, 寡人命她即刻...出任**待令熟手**!

TT3: 因此, 寡人命她即刻...出任**御廚**!

한국 사극에서 ‘숙수’는 궁중에서 일하는 남자 요리사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현대 한국인에게도 일상적으로 친숙한 표현은 아니며, 《대장금》처럼 궁중 요리를 소재로 한 사극이 대중화되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진 옛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11>에서 TT1과 TT2는 ‘숙수’를 한자 표기 그대로 옮긴 ‘熟手’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熟手’는 단순히 ‘어떤 일에 숙련된 사람’을 뜻할 뿐, 전문 요리사라는 직업적 성격이나 궁중 인물로서의 신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T3에서는 중국 고전 소설과 사극에서 자주 쓰이는 ‘廚子’란 단어를 선택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전달 하도록 하였다.

다만 같은 ‘숙수’라 하더라도 직위에 따라 번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시12>의 ‘대령숙수’는 일반 요리사가 아니라 임금의 수라를 담당하는 궁중 요리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TT1과 TT2는 이를 ‘待令熟手’로 직역하는 데 그쳐, 앞서 지적한 ‘熟手’ 번역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반면 TT3의 ‘御厨’는 중국 사극에서 황실이나 궁중에 소속된 요리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며, 원문의 직업적 기능과 신분적 속성을 보다 충실하게 재현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예시13> 1화 20:11 왕의 대사

ST: 사슴을 사용원으로 옮겨라

TT1: 把鹿送到司饗院去

TT2: 把鹿送到司饗院去

TT3: 把鹿送到御膳房去

ST의 ‘사용원’은 TT1과 TT2에서 모두 ‘司饗院’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 표기만으로는 중국 시청자가 사용원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용원은 조선 시대 궁중의 음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기능적으로는 수라간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본 드라마에서는 사용원이 수라간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용원이 수라간을 관할하는 관청이라면, 실제로 임금의 수라를 준비하는 공간은 수라간인 셈이다. 따라서 TT3에서는 이러한 드라마의 맥락을 반영하여 관청의 위계보다는 기능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시청자에게 익숙한 사극 용어인 ‘御膳房(어선방)’으로 수정번역을 제안하였다.

<예시14> 5화 18:30 영의정의 대사

ST: 이미 영접도감을 설치하였고 원접사로 예조참판 유형민 대감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양주로 떠났사옵니다

TT1: 为迎接使臣团, 已设立了临时接待所,

礼曹参判柳亨旼已带领随行人员前往扬州履行远接使的职责

TT2: 为迎接使臣团, 已设立了临时接待所,

禮曹參判柳亨岐已帶領隨行人員前往楊州履行**遠接使**的職責
 TT3: 为迎接使臣团, 已设立了临时接待所,
礼部侍郎柳亨岐已带领随行人员前往杨州履行**迎接使臣的职责**

조선의 ‘예조참판’은 직제와 기능 면에서 중국의 ‘예부시랑(禮部侍郎)’과 가장 높은 기능적 등가성을 지닌다. 조선의 예조판서·예조참판은 각각 중국의 예부상서(禮部尙書)·예부시랑에 대응하는 장관급·차관급 관직이므로, TT3에서는 자국화 전략에 따라 ‘礼部侍郎’으로 번역하였다. 같은 원리에 따라 극 중의 ‘공조참판(2화 21:59)’ 역시 중국의 대응 관직인 ‘工部侍郎’으로 번역할 수 있다.

원접사는 조선 시대에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외교 관직으로, 중국 시청자에게는 ‘遠接使’는 이 한자 관직명이 낯설다. 이런 경우에는 직함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해당 직위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의미를 풀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구성하는 명시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번역 전략이 될 수 있다. TT3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직책’, ‘迎接使臣的職責’으로 풀어 옮겼다.

<예시15> 5화 19:51 좌의정의 대사
 ST: 나도 **영상** 대감과 같은 생각이오
 TT1: 臣同意**領議政**大人的看法
 TT2: 臣同意**領議政**大人的看法
 TT3: 臣同意**丞相**大人的看法

<예시16> 6화 38:47 왕의 대사
 ST: **우상** 대감이 그곳에 있었다?
 TT1: **右议政**去过那里?
 TT2: **右議政**去過那裡?
 TT3: **右丞相**大人去过那里?

‘영상’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무 책임자, ‘우상’은 이를 보좌하는 대신을 의미한다. TT3에서는 이를 각각 ‘丞相’과 ‘右丞相’으로 번역하였다. 비록

중국의 관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왕을 보좌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과 양자의 위계 관계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丞相’은 중국 시청자에게 가장 익숙한 재상 명칭이며, ‘右丞相’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직위와 서열 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등가에 기반한 자국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시17> 1화 36:37 공조참판의 대사

ST: 경기도 **관찰사** 홍경달이 누구냐 숙원 강씨가 주상 전하를 귀락펴락 한다고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는 꼬장꼬장한 양반 아니냐

TT1: 京畿**觀察使**洪敬達是個老頑固, 認為淑媛姜氏在肅感主上, 不斷地上疏

TT2: 京畿**觀察使**洪敬達, 他是個老頑固, 認為淑媛姜氏在肅感主上, 不斷地上疏

TT3: 京畿**巡撫**洪敬達, 他是個老頑固, 認為淑媛姜氏在肅感主上, 不斷地上疏

관찰사(觀察使)는 조선 시대 각 도의 행정·사법·감찰을 총괄하던 최고위 지방관으로, 오늘날의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지방 최고 통치자라 할 수 있다. TT1과 TT2는 이를 ‘觀察使’로 직역하였으나, 중국 시청자가 이 표현만으로 해당 관직의 기능과 위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조선의 ‘관찰사’는 명칭은 당나라의 ‘觀察使’에서 유래했지만, 실제로는 지방 감찰관이 아니라 한 도(道)를 관할하는 최고 지방 행정관이라는 점에서 역할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觀察使’로 직역하면 중국 시청자가 당나라의 관직과 동일한 직책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TT3의 ‘巡撫’는 명·청대 한 성(省)을 관할하던 최고 지방 행정 책임자로, 광역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지방 최고 통치자라는 점에서 관찰사와 기능적 유사성이 높다. 또한 중국 사극과 역사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관직명이어서, 중국 시청자가 해당 관직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능적 등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예시18> 1화 24:04 왕의 대사

ST: 오늘 사냥이 끝나면 경기 **값연**으로 간다

- TT1: 狩猎结束寡人便会前往京畿監營
 TT2: 狩猎结束后, 寡人便会前往京畿監營
 TT3: 狩猎结束后, 寡人便会前往京畿巡抚衙门

<예시18>는 ‘감영’을 한자 그대로 ‘監營’으로 옮겼는데, 이는 중국 시청자에게 감옥이나 군영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감영(監營)’은 관찰사가 직무를 수행하던 관아를 가리킨다. 앞서 <예시18>에서 관찰사를 중국의 유사 관직인 ‘순무(巡撫)’로 자국화한 만큼, 그가 직무를 보는 공간인 ‘감영’ 역시 같은 전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된다. 중국 사극에서 관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아문(衙门)’으로 표현되므로, TT3은 이를 반영하여 ‘巡抚衙门’으로 수정하였다.

- <예시19> 1화 39:37 왕의 대사
 ST: 금부에서 네놈의 배후까지 낚낚이 밝혀 주마
 TT1: 到了義禁府, 自然会查明幕后黑手
 TT2: 到了義禁府, 他們自然會查明幕後黑手
 TT3: 到了詔獄, 自然会查明幕后黑手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는 임금의 명을 받아 중죄인을 체포하고 심문하던 관청이다. 그러나 이를 한자어 형태 그대로 직역해 버리면 중국 시청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사극에서도 중죄인을 수감하고 심문하는 기관으로 자주 등장하는 관청이 바로 ‘詔獄’이다. 특히 명나라의 ‘詔獄’은 황제가 직접 관할하며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죄인을 심문하던 특별 사법기관으로, 왕명의 집행과 중죄인 심문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조선의 의금부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TT3에서 ‘의금부’를 ‘詔獄’로 수정번역하여 기능적 등가를 이루도록 하였다.

- <예시20> 10화 39분 32초 왕의 대사
 ST: 도승지에게 내의원으 가서 진명대군 약제에
 손댄 자를 당장 찾으라 일러라

TT1: 派都承旨去内医院, 让他查出是谁在晋明大君的药里动了手脚

TT2: 派都承旨去内醫院, 讓他查出是誰在晉明大君的藥裡動了手脚

TT3: 派都承旨(御前秘書)去内医院, 让他查出是谁在晋明大君的药里动了手脚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직명은 ‘도승지(都承旨)’이다. 도승지는 승정원의 수장으로서 왕명의 출납을 총괄하던 정3품 문관으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비견되는 임금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도승지와 기능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명·청대 중국의 관직은 찾기 어렵다. 중국 사극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태감(太監)이지만, 환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문관인 도승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도승지는 무리하게 자국화하기보다 ‘都承旨’를 그대로 옮기는 이국화 전략을 취하고, 처음 등장할 때 ‘御前秘書’와 같은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2〉 관직·관청 중국어 번역 일람표

ST	횟수	TT1	TT3
영감/대감/나리	34/26/24회	大人/众卿/大人	大人/大人/大人
제조상궁	1회	提调尚宫	掌事尚宫
최고상궁	2회	尚宫	掌膳尚宫
감찰상궁	3회	监察尚宫	监察尚宫
상선	9회	尚膳	公公
숙수/대령숙수	393/240회	熟手/待令熟手	厨子/御厨
사옹원	24회	司饗院	御膳房
예조참판	1회	礼曹参判	礼部侍郎
원접사	3회	远接使	迎接使臣
공조참판	4회	工曹参判	工部侍郎
도승지	35회	都承旨	都承旨(御前秘书)
영상	4회	领议政	丞相
우상	3회	右议政	右丞相
관찰사	11회	观察使	巡抚
감영	18회	监营	巡抚衙门
의금부	2회	义禁府	诏狱

4. 제도·문화·기타

앞서 살펴본 호칭어와 관직·관청 용어가 비교적 체계적인 범주에 속한다면, 본 장에서 다루는 제도·문화 관련 용어는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강하게 반영된 어휘들이다. 이러한 용어는 한자 표기가 같더라도 그 의미와 기능이 중국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역만으로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한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원문의 기능과 함의를 살리거나 중국어의 대응 개념으로 치환하는 번역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시21> 1화 23:51 왕의 대사

ST: 오늘 도승지 임송제가 **채홍**하러 간 곳이...

TT1: 都承旨任頌載去哪**采紅**了?

TT2: 都承旨任頌載去哪裡**採紅**了?

TT3: 都承旨任頌載去哪**搜羅美人**了?

‘채홍(採紅)’은 조선 시대 임금에게 바칠 미녀를 전국에서 징발하던 제도로, 연산군⁸⁾의 폭정과 황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TT1과 TT2는 이를 모두 ‘采紅’으로 직역하였으나, 중국 시청자가 이 표현만으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 용어는 직역보다 의미를 드러내는 의역이 적절하다. 특히 드라마의 ‘채홍’은 단순한 선발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강제 동원을 의미하므로, 중립적인 ‘選秀’보다 TT3의 ‘搜羅美人’이 강제성과 권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채홍패(採紅牌)’ 역시 ‘采紅牌’로 직역되어 있다. ‘채홍패(2화 34:29)’는 채홍을 집행하도록 왕명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신표(信標)로, 단순한 패가 아니라 공식적인 권한의 상징이다. 따라서 중국 시청자에

8) 본 드라마는 웹소설 《연산군의 세프》를 원작으로 하며, 드라마화 과정에서 역사적 실존 인물인 연산군을 가상의 인물인 ‘연희군’으로 각색하여 설정하였다.

게 생소한 ‘采紅牌’보다, 황제의 명령을 상징하는 ‘令牌’로 번역하는 것이 기능과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적 등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예시22> 2화 30:30 공조참관의 대사

ST: 이래서야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TT1: 你根本没有資格擔任看管百姓的**牧民官**

TT2: 你根本沒有資格擔任看管百姓的**牧民官**

TT3: 你根本没有資格擔任看管百姓的**父母官**

‘목민관(牧民官)’은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백성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지방관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영향으로 비교적 익숙한 용어이지만, 현대중국어에서 ‘牧民⁹⁾’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어적 표현이어서 일반 중국어권 시청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더욱이 ‘牧’이 ‘목축하다’라는 의미로 더 널리 인식되는 만큼, ‘牧民官’을 목축 지역의 관리나 목축 관련 관직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백성을 부모처럼 보살피며 선정을 베푸는 지방관을 가리킬 때 ‘父母官’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TT3의 ‘父母官’은 중국 시청자가 해당 관직의 역할과 이미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등가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예시23> 12화 08:53 제산대군의 대사

ST: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즉위식**을 거행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TT1: 明日天一亮就会举行**即位礼**, 就这么定了

TT2: 明日天一亮就會舉行**即位禮**, 就這麼定了

TT3: 明日天一亮就会举行**登基大典**, 就这么定了

<예시23> ‘즉위식’을 ‘即位禮’로 직역한 것은 의미 전달에는 무리가 없지만 문어적 성격이 강해 드라마 대사로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반면 TT3의 ‘登基

9) ‘목민(牧民)’은 《書經》·《管子》·《孟子》·《禮記》 등 유가 경전에 나타나며, 이후 지방관을 뜻하는 ‘목민관(牧民官)’이란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大典'은 중국 사극에서 군주의 즉위식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중국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적 등가 번역이다.

<예시24> 6화 13:12 도승지의 대사

ST: 의전은 제대로 하라 하셨으니 하마연을 잘 준비해 보시지요

TT1: 殿下不是说了要按规矩来吗?

那我们用心准备下马宴吧

TT2: 殿下不是说了要按规矩来吗?

那我们用心準備下馬宴吧

TT3: 皇上不是说了要按规矩来吗?

那我们用心准备接风宴吧

‘하마연’은 외국 사신이 도착한 날 임금이 베푸던 환영 연회를 가리킨다. 그 명칭은 ‘먼 길을 말을 타고 온 사신이 목적지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TT3의 ‘接風宴’은 중국 사극에서 사신이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를 뜻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下馬宴’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예시25> 5화 40:34 여주인공의 대사

ST: 반정으로 왕이 되는 건 진명대군 아니었나?

TT1: 通过反正登上王位的不是晋明大君吗?

TT2: 透過反正登上王位的不是晉明大君嗎?

TT3: 通过政变登上皇位的不是晋明大君吗?

‘반정(反正)¹⁰⁾’은 폭정이나 혼란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정치적 행위를 의미한다. TT1과 TT2는 이를 한자어 그대로 ‘反正’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현

10)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애공(哀公) 14년 조의 “撥亂世, 反諸正(난세를 평정하여 바른 데로 되돌린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발란반정(撥亂反正)’이며, ‘반정’은 이 성어의 후반부(反正)에 해당한다. 곧 ‘반정’은 혼란을 평정하고 정통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정치적·도덕적 명분을 함축한 표현이다.

대 중국어에서 ‘反正’은 주로 ‘어쨌든’, ‘아무튼’을 뜻하는 부사로 사용되므로, 정치적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원이 되는 사자성어 ‘撥亂反正’ 역시 현대 중국어에서는 역사·정치 분야의 문어적 표현으로 인식되어 드라마 대사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반면 TT3은 중국어 수용자의 이해와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려하여 ‘반정’의 상위 개념인 ‘政變’을 번역어로 선택하였다. 이는 권력 교체라는 핵심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형태적 등가보다 기능적 등가를 우선한 자국화 번역전략이다. 다만 ‘政變’은 권력의 비정상적인 교체를 의미하는 포괄적 용어일 뿐, ‘반정’에 내포된 부정한 정치를 바로잡아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도덕적 명분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다.

<예시26> 12화 11:05 제산대군의 대사

ST: 이제 교지를 내리시지요

TT1: 請下教旨吧

TT2: 請下教旨吧

TT3: 請下聖旨吧

ST의 ‘교지(教旨)’는 임금이 내리는 왕명 문서를 뜻한다. TT1과 TT2는 이를 ‘教旨’로 직역하였으나, 이 표현은 중국어권 시청자에게 군주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며, 자칫 종교적 의미의 ‘교지(教旨, 종파의 가르침)’로 오인될 여지도 있다. TT3 ‘聖旨(성지)’는 중국에서 군주의 공식 명령을 지칭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한국어 ‘교지’의 기능적 대등어이다.

<예시27> 11화 29:24 홍문관 교리의 대사

ST: 사고의 사초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가장사초지요

TT1: 存于史庫外的史草, 此為記載實情與論贊的家藏史草

TT2: 是存於史庫外的史草, 此為記載實情與論贊的家藏史草

TT3: 此非存于史庫之史料, 而是記載實情與論贊的私藏史料

<예시27> ‘사고(史庫)’, ‘사초(史草)’, ‘가장사초(家藏史草)’가 모두 한자어

그대로 직역되어 있다. 이 가운데 ‘史庫’는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의미가 비교적 분명해 중국 시청자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史草’와 ‘家藏史草’는 생소한 용어여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초’는 조선시대 사관이 작성한 역사 기록의 초고로, 훗날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가 되는 1차 사료이다. ‘가장사초’는 사관이 세평과 사적인 견해까지 담아 집에 보관한 사초를 말하며,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초보다 더욱 솔직하고 가감 없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즉, ST는 사고에 보관된 공식 사초가 아니라 사관의 진솔한 평가가 담긴 가장사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상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史草’와 ‘家藏史草’를 직역하면 중국 시청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원문의 ‘A가 아니라 B’라는 대조 구조가 TT1과 TT2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두 기록의 차이가 약화되고 문장도 다소 경직되었다.

TT3에서는 ‘史草’를 중국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위 개념인 ‘史料’로 일반화하여 번역하고, ‘家藏’을 ‘私藏’으로 바꾸어 개인이 보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此非……而是……’ 구문을 사용하여 원문의 대조 구조를 중국어 표현 방식에 맞게 자연스럽게 재현하였다.

<예시28> 5화 18:42 우의정의 대사

ST: 또한 사신단의 흥을 돋우도록 **광대**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TT1: 此外, 为款待使臣团, 还召集了众多**广代**, 准备了盛大的欢迎仪式

TT2: 此外, 爲款待使臣團, 還召集了衆多**廣代**, 準備了盛大的歡迎儀式

TT3: 此外, 为款待使臣团, 还召集了众多**戏子**, 准备了盛大的欢迎仪式

ST의 ‘광대(廣大)’는 탈을 쓰고 가무·연극·기예 등을 공연하던 전문 예인을 가리킨다. 이 명칭은 고유어를 한자 ‘廣大’로 음차 표기한 것이므로, 글자만으로는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 TT1과 TT2는 이를 ‘广代’로 음역하였으나, 중국 시청자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의미도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戲子’는 중국에서 가무와 연회를 업으로 삼던 예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조선시대 ‘광

대'와 기능적 유사성이 높다. 따라서 TT3의 '戲子'는 원문의 의미를 중국 시청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적 등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5. 사극 관용표현

지금까지 살펴본 호칭어·관직명·제도 용어가 주로 어휘 차원의 문제였다면, 본 장에서 다루는 사극 관용표현은 문장 차원의 화법에 해당한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황궁하옵니다', '송구하오나'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 화자의 신분, 청자에 대한 태도, 발화 상황을 함께 드러내는 화용적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정형화된 사극체 관용표현은 직역만으로는 공손함과 격식, 화자의 의도를 충분히 재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극 관용표현의 중국어 자막 번역을 화용적 기능과 중국 사극의 관습적 화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수정번역을 제시한다.

1) 사죄·청죄의 화법

<예시29> 1화 21:17 대전상궁의 대사

ST: 송구하옵니다, 대왕대비마마,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TT1: 恕罪, 大王大妃娘娘, 是小人的失職

TT2: 恕罪, 大王大妃娘娘, 是小人失職

TT3: 請大皇太后娘娘恕罪, 都是小人的失職

‘송구하옵니다’는 자신의 잘못이나 과분한 은혜에 대해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을 나타내는 매우 높은 경어 표현이다. 해당 장면은 왕이 중요한 의례인 구식례(救食禮)가 거행되는 날 사냥을 나간 일로, 대왕대비가 대전상궁을 문책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상궁은 책임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TT1과 TT2는 이를 ‘恕罪’로 직역하여 의미는 전달하지

만, 중국 사극의 관용적 화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소 번역투로 느껴진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사죄할 때 일반적으로 TT3과 같은 ‘請○○恕罪’의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예시30> 4화 24:46 최고상궁의 대사

ST: 송구하오나, 저렇게 데치고 무친 것을 처음 보았는지라,
무어라 장담하기 어렵사옵니다

TT1: 遺憾的是, 小人从未见过如此烹煮或调味之法, 因此不敢妄下定论

TT2: 遺憾的是, 小人從未見過如此烹煮或調味之法, 因此不敢妄下定論

TT3: 小人无能, 小人从未见过如此烹煮或调味之法, 因此不敢妄下定论

‘송구하오나’는 상대방에게 미안하거나 황송한 마음을 공손하게 드러내며, 본론에 앞서 자신의 발화를 완곡하게 제시하고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담화표지로 기능한다. TT1과 TT2는 이를 ‘遺憾的是’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유감스럽게도’라는 의미에 그쳐 원문의 겸양과 사죄의 화용적 기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하인이윗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발언할 때 ‘○○无能’과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드러내는 겸양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TT3에서는 ‘小人无能’으로 수정하여 원문의 공손성과 사죄의 뉘앙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하였다.

<그림 2> 중국 사극 사죄·청죄 관용표현 예시

송구하옵니다	송구하오나	죽여 주시옵소서
		

<예시31> 2화 54:26 관찰사의 대사

ST: 전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TT1: 殿下, 請殿下直接取了微臣的性命吧!

TT2: 殿下, 請殿下直接取了微臣的性命吧!

TT3: 皇上, 微臣愿以死謝罪!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죽음을 청해 강한 결의와 사죄의 마음을 공손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TT1과 TT2는 이를 ‘直接取了微臣的性命吧’로 번역하였으나, ‘取了○○性命’은 중국어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처형하거나 제삼자의 목숨을 빼앗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어, 신하가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발화로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賜臣死罪’나 ‘微臣愿以死謝罪’와 같은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2) 간언·청원의 화법

<예시32> 11화 47:18 도승지의 대사

ST: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TT1: 殿下! 請您開恩哪!

TT2: 殿下! 請您開恩啊!

‘통촉(洞燭)하여 주시옵소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펴 주기를 청하는 표현으로,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대표적인 청원 어법이다. TT1과 TT2는 이를 ‘開恩’(은혜를 베푼다)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군주에게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사정을 깊이 헤아려 옳고 그름을 살펴 달라’는 ‘통촉’의 핵심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즉, ‘開恩’은 시비를 가려 달라는 요청보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청원에 가깝다. 다만 본 장면은 군주가 사정을 살핀 뒤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는 맥락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맥락상 큰 문제는 없는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예시33> 1화 01:58 신하들의 대사

ST: 전하, 귀녀를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리시어, 군왕의 도를 바로 세우소서

TT1: 殿下, 您必須將這鬼女處以極刑, 整肅朝綱

TT2: 殿下, 請務必將這鬼女處以極刑, 以整頓朝綱

TT3: 皇上, 理當將這鬼女處以極刑, 以正君道

‘~소서’체는 신하가 군주에게 특정한 조치를 공손하면서도 강하게 청하는 간언의 화법이다. 원문의 ‘군왕의 도를 바로 세우다’는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군주의 도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TT1과 TT2는 이를 각각 ‘整肅朝綱’과 ‘整頓朝綱’으로 번역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원문의 교정 대상인 군주가 신하들로 전도되어 의미가 달라졌다.

이에 비해 ‘以正君道’는 군주의 도리를 바로 세운다는 원문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문맥에 따라 ‘以正國法’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T1과 TT2의 ‘您必須’는 신하가 군주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지나치게 직접적이므로, 간언의 화법에 맞는 완곡한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TT3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皇上, 理當將這鬼女處以極刑, 以正君道’로 수정함으로써 중국 사극의 언어 관습을 보다 자연스럽게 재현하였다.

3) 보고·진언의 화법

<예시34> 3화 54:01 도승지의 대사

ST: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대신들의 사직 상소이옵니다

TT1: 殿下, 恕臣直言, 是大臣們遞上的辭呈

TT2: 殿下, 恕臣直言, 是大臣們遞上的辭呈

TT3: 回稟陛下, 这是大臣們遞上的辭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는윗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아뢰거나 보고할 때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TT1, TT2 모두 ‘恕臣直言’

으로 옮겼다. 그러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하가 왕에게 특정 사실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보고에 해당한다. 반면 ‘恕臣直言’은 신하가 군주에게 간언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곧 이어질 말이 다소 직설적이거나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을 예고하는 표현이어서 해당 장면에는 적절하지 않다. 중국 사극에서 신하가 단순히 사실을 보고하거나 윗사람의 물음에 답할 때에는 ‘回禀’, ‘回○○的話’ 등이 더 자연스럽다.

<예시35> 3화 55:28 이조판서의 대사

ST: 이것은 요녀가 전하를 매일 밤 미혹하여 목숨을 부지하듯, 홍경달도 미혹하여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옵니다**

TT1: 那奸詐的女人为了活命, 蒙骗了主上殿下和洪敬达,
才引起了这一连串的事件

TT2: 那奸詐的女人爲了活命, 蒙騙了主上殿下和洪敬達,
才引起了這一連串的事件

TT3: **依臣之見**, 那奸詐的女人为了活命, 蒙骗了主上殿下和洪敬达,
才引起了这一连串的事件

‘사료되는 바이옵니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추측을 매우 공손하게 전달하는 고어체 표현이다. TT1과 TT2는 이를 모두 생략하였는데, 그 결과 추측의 의미가 약화되어 문장이 단정적인 의미로 바뀌고 왕에 대한 공손함과 경의도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다. 특히 해당 발화는 신하가 왕에게 공식적으로 의견과 판단을 개진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화용적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TT3에서는 추측·견해 제시의 의미를 갖는 중국 사극 표현 ‘依臣之見’을 문두에 추가하여 원문의 뉘앙스를 보완하였다.

<그림 3> 중국 사극 간언·보고·진언 관용표현 예시

군왕의 도를 바로 세우소서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사료되는 바이옵니다
		

4) 감사·겸양의 화법

<예시36> 3화 18:15 공길의 대사

ST: 오늘도 수고했다 / **황송하옵니다**, 전하

TT1: 你今天也一如既往地做得很好 / **是我的荣幸**, 殿下

TT2: 你今天也一如既往地做得很好 / **是我的荣幸**, 殿下

TT3: 你今天也一如既往地做得很好 / **谢皇上夸奖**

‘황송하옵니다’는윗사람의 말씀이나 은혜에 대해 황송한 마음을 나타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경어 표현으로, 감사와 겸손, 경우에 따라 두려움의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다. 본 장면에서는 군주의 칭찬을 받은 신하가 자신의 공을 낮추며 감사와 겸손을 표하는 발화이다. 그러나 TT1과 TT2는 이를 ‘是我的荣幸’으로 번역하였다. 이 표현은 현대 중국어에서 ‘영광입니다’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지만 현대적인 어감이 강해, 군주의 칭찬에 대한 신하의 겸양과 예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謝皇上夸奖’, ‘臣愧不敢当’과 같이 감사와 겸손을 함께 드러내는 관용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TT3에서는 이러한 언어 관습과 신분 관계를 고려하여 ‘謝皇上夸奖’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화용적 기능을 보다 자연스럽게 재현하였다.

<예시37> 3화 19:13 공길의 대사

ST: 아이고 **황송하옵니다**, 전하!

- TT1: 多謝隆恩, 殿下
 TT2: 多謝隆恩, 殿下!
 TT3: 謝皇上聖恩

본 장면은 왕이 공길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사품을 내리는 상황이다. TT1과 TT2는 이를 ‘多謝隆恩’으로 번역하여 하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多謝隆恩’은 직역에 가까운 표현으로, 중국 사극의 관용적 화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소 번역투로 느껴진다. 반면 TT3의 ‘謝皇上聖恩’은 황제의 은혜와 하사에 감사를 표할 때 중국 사극에서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으로, 원문의 화용적 기능을 보다 자연스럽게 재현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5) 기타 사극체 관용 표현

- <예시38> 10화 53:11 어의의 대사
 ST: 하오나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며 조금 쉬셔야 하옵니다
 TT1: 殿下, 您必須好好休息, 恢復元氣才行
 TT2: 殿下, 您必須好好休息, 恢復元氣才行
 TT3: 皇上, 您要好好休息, 保重龍體才行

‘옥체(玉體)를 보존하다’는 임금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극의 관용표현이다. TT1과 TT2는 이를 ‘恢復元氣’(원기를 회복하다)로 번역하여 기본적인 의미는 전달하지만, 군주의 신체를 높여 부르는 원문의 경어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대적인 어감도 강하다. 반면 중국 사극에서는 군주의 건강을 기원할 때 ‘保重龍體(용체를保重하다)’와 같은 관용표현을 널리 사용된다. 또한 TT1과 TT2의 ‘您必須’는 신하가 군주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다소 직접적이므로, TT3에서는 ‘您要’로 완화하여 청유의 어조와 공손함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그림 4〉 중국 사극 감사겸양기타 관용표현 예시



〈표 3〉 한중 사극 관용어 대조표

ST	TT1	TT3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开恩	开恩
송구하옵니다	恕罪/遺憾的是	恕罪/恕小人无能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恕臣直言/恕我多嘴	回禀陛下/恕臣妾多嘴
황공하옵니다	是我的荣幸/多谢隆恩	谢皇上夸奖/谢皇上圣恩
옥체를 보존하다	恢复元气	保重龙体
죽여 주시옵소서	取了微臣的性命	请赐微臣死罪
사료되는 바이옵니다	누락	依臣之见
죽을죄를 지었사옵니다	罪该万死	罪该万死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遵旨	遵旨
군왕의 도를 바로 세우소서	整顿朝纲	以正君道

6. 결론

본고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공식 중국어 자막을 대상으로 한국 사극의 호칭어, 관직명, 제도 용어, 관용표현이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보다 적절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이 한자문화권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사극 용어는 단순한 한자 직역만

으로는 원문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한자어라도 양국의 역사·제도·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와 위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칭어와 겸칭어는 조선의 위계질서를 중국 시청자에게 익숙한 황제 중심의 위계 체계로 재맥락화하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직명과 관칭명은 명칭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기능과 위상이 유사한 중국의 관직·관칭으로 대응시키는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 전략이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셋째, 제도·문화 용어와 사극 관용표현은 문화적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정보를 보충하는 명시화(explicitation)와 의미 중심의 의역, 그리고 중국 사극의 관습적 표현을 활용한 번역이 수용자의 이해도와 자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기존 자막에서는 명확한 번역 원칙 없이 한자어를 직역하거나 중국어의 관용적 대응 표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화자의 신분과 위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번역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작품의 맥락과 중국어권 시청자의 언어 습관 및 문화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간체자막과 번체자막을 함께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번역이 두 자막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번체와 간체 자막 간 번역 품질이나 번역 전략을 비교하는 것은 본 작품에서는 큰 의의를 갖지 못하였다. 이는 다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간체자막과 번체자막 사이에 번역 방식이나 품질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와는 다른 결과이며, 《폭군의 셰프》의 중국어 자막은 두 문자 체계에서 거의 동일한 번역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고에서 제안한 자국화와 기능적 등가 전략은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 국왕을 ‘皇上’, 국왕의 명령을 ‘조旨’로 번역하는 방식은 수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역사적

정확성을 일부 희생하게 된다. 결국 사극 번역은 정확성과 가독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본 고의 수정번역 역시 이러한 균형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사극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궁중 용어, 관직명, 의례 용어, 관용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중 대조 어휘집과 번역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국화, 기능적 등가, 명시화 등의 번역 전략을 실제 영상번역에 적용·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극의 중국어 번역 품질 향상과 번역 기준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 심현보·진백일·양명·이정희, 「한국 시대극 영화<진,란(戰,亂)>의 유표적 표현 번역 전략 비교 - 중국어·일어 자막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 83집, 2025.
- 모나 베이커,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신문화사, 2009.
-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05.
- 우박혜, 이근석, 「드라마『오징어게임』의 중국어 자막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4집, 2022.
- 안희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킹덤>의 아랍어 자막 번역 특성」,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33권 2호, 2023.
- 심현보 외(2024),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역사 영상 콘텐츠 문법 연구 : 종결어미의 사용양상을 중심으로」, 『스토리콘텐츠』 5집,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pp.109-133.
- 금지아,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제16권 3호, 2015.
- 刘万生, 「归化与异化对立而统一——用奈达的翻译理论论归化与异化」, 『南通职业大学学报』, 第3期, 2002.
- 窦云鹏, 「韩国影视剧字幕汉译策略」, 『黄山学院学报』, 第14卷, 第6期, 201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漢典 <https://zdic.net/>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hinese Subtitle Translation in the Drama 《Bon Appétit, Your Majesty》

—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Historical Drama Dialogue

Fan, Yun Xiu · Lee, Kun Seok

This study analyzes the official Chinese subtitles of the Korean historical drama *The Tyrant's Chef* to examine how culture-specific elements of Korean *sageuk* are translated into Chinese and to propose improved translation strategies. Combining modern Korean with historical speech styles and featuring numerous court, institutional, and cultural expression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drama provides a valuable corpus for investigating historical drama translation. Focusing on four categories—terms of address and honorifics, official titles and administrative offices, institutional and cultural terminology, and idiomatic expressions—this study compares the Simplified Chinese subtitles (TT1) and Traditional Chinese subtitles (TT2) and proposes revised translations (TT3).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Korea and China sharing a common Sinographic cultural tradition, literal translation often fails to convey the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Korean historical expressions because identical Chinese characters may represent different institutions, hierarchies, and cultural meanings. 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identifies four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domestication, which recontextualizes the Joseon hierarchy for Chinese audiences; functional equivalence, which replaces Korean official titles with Chinese counterparts of comparable function and status; explicitation, which clarifies culturally embedded meanings; and idiomatic equivalence, which adopts conventional expressions from Chinese historical drama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atively underexplored field of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historical dramas by proposing practical translation strategies and provid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Chinese

glossary of sageuk terminology and translation guidelines for future subtitle production.

Key words : Bon Appetit Your Majesty, Korean-Chinese translation, historical drama subtitle translation, translation of cultural elements, domestication, functional equivalence, Netflix subtitles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